선명상 대중화 첫 지역 거점 센터 개원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센터
7월 22일 개원법회 봉행해
선명상 통한 정신건강 증진
웰니스 관광으로 지역 상생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는 7월 22일 경북 영덕군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현판 제막식 후 진행된 내외빈 기념촬영.

조계종이 국민의 마음건강과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첫 지역 거점인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를 경북 영덕에 개원했다. 영덕 출신인 나옹왕사의 수행정신을 계승한 치유공간으로, 선명상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전통문화와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본부장 일감 스님)는 7월 22일 영덕군 창수면 장육사 인근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선명상중앙본부장 일감 스님,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 운영위원장 성행 스님,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해 개원을 축하했다.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는 영덕군이 조성한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내 시설을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곳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국사가 지원을 맡아 전통 수행과 현대 치유를 접목한 선명상 전문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서실장 남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현대사회는 갈등과 불안, 정신적 고통이 만연한 시대인 만큼 선명상은 현대인들이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음 처방전"이라며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는 종단이 추진하는 선명상 전국 보급의 첫 번째 지역 거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옹왕사의 화두 선명상을 기반으로 분별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이곳 영덕에서 지역사회와 결합하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전통문화와 치유관광을 연계해 지역과 상생하는 선명상 운영의 모범적인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운영위원장 성행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곳 영덕은 나옹왕사가 탄생한 성스러운 땅"이라며 "왕사의 걸림 없는 가르침은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마음의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명상중앙본부와 불국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영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명상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도 축사를 통해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영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통문화와 현대 명상이 공존하는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기초 선명상과 간화선 체험을 비롯해 주말 1박 2일 선명상 입문과정, 나옹 간화선 캠프, 고래불 해변 맨발 걷기와 메타숲 명상 등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불국사·석굴암을 연계한 K-선명상 투어와 선명상 축제, 기업·기관 연수 프로그램 등도 마련해 선명상의 대중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함께 이끌 계획이다.

사찰림, 치유의 숲으로 거듭난다

국립공원공단·사찰 MOU 체결
해설프로그램 운영…연구 추진


'속리산 세조길 자연이야기' 역사·문화 해설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촉각 체험을 하는 모습.

사찰과 국립공원공단이 손을 맞잡고 사찰림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 이하 공단)은 사찰과 체결한 '공원보호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쉼터와 탐방로를 조성한다. 팔공산 은해사에서는 사찰림 훼손지를 복원하고 자생종을 식재한다. 가야산 심원사와 치악산 영원사에는 정자 등 쉼터와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내장산 백양사와 한려해상 부소암에는 문화자원 탐방로를 조성한다.

앞서 공단은 2024년부터 사찰숲과 시민을 잇기 위한 '경관 가치 증진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4년에는 예산 2억원을 투입해 북한산 성불사와 내장산 백양사의 훼손지를 복원하고 자생종과 차나무 등을 식재했다.

사찰림의 문화 가치를 알리는 역사·문화 해설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무등산 천년고찰 숲길여행'과 '속리산 세조길 자연이야기', '변산반도 내소사 전나무숲' 등 전국 11개 사무소에서 탐방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공원문화유산지구 가치 증진 방안 연구'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오랜 세월 숲을 지켜온 사찰이 공원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그 가치를 대중과 나눌 수 있는 '협력적 관리'로 정책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월정사 제71기 출가학교 입재

7월 13일부터 3주간 진행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7월 13일 '제71기 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하고 3주간의 수행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출가학교에는 13세 최연소 참가자부터 68세 최고령 참가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27명(남 13명·여 14명)이 입교했다.

고불식에서 월정사 한주 혜안 스님은 출가학교의 의미를 '마음을 돌이켜 보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출가학교는 참선과 절, 참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정"이라며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에는 큰 변화가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행자들은 3주 동안 예불과 운력, 선명상, 발우공양 등 승가의 일상과 수행을 체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나주 다보사, 조선 후기 '신중도' 환지본처

조계종 문화부 협조로 귀환
19세기後 불화 양식 보여줘



1884년 조성된 나주 다보사 신중도가 조계종 문화부의 협조로 본래 봉안처인 다보사로 환지본처했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조선 불화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을 충실히 보여주는 성보문화유산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주 다보사(주지 만민 스님) 소장 19세기 불화인 신중도(神衆圖, 사진)가 조계종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의 협조로 환수돼 본래 봉안처인 다보사로 돌아왔다. 다보사는 이번 환지본처를 계기로 성보문화유산 환수와 보존 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환지본처된 신중도는 상·하 2단 구도로 구성된 불화로, 상단에는 제석천을 중심으로 한 신중을, 하단에는 천룡과 팔부중을 배치하고 있다. 화면에 등장하는 존상들은 정제된 도식성을 갖춰 19세기 후반 조선 불화의 전형적인 양식을 잘 보여준다.

채색은 홍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녹색과 청색을 조화롭게 배치해 안정감 있는 화면을 연출했으며, 안정적인 필선과 치밀한 세부 묘사를 통해 당시 불화의 높은 제작 수준을 보여준다.

신중도는 세로 133㎝, 가로 52㎝ 규모로 하단 화기를 통해 1884년(고종 21)에 조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화기에는 시주자의 이름과 제작 시기가 기록돼 있으며,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조선 불화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을 충실히 보여주는 성보문화유산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지 만민 스님은 환수에 힘쓴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과 문화부 관계자 등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신중도의 환지본처를 계기로 그동안 다보사에서 반출된 성보문화유산들이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백양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보사는 이번에 돌아온 신중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와 보존처리를 거친 뒤 신도와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근대 불화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성보문화유산 환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문화硏, 전주 연꽃문화축제 성료

7월 18~19일 전주 덕진공원서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은 7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 특설무대에서 '2026 전주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형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첫날인 18일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개회식이 열렸다. 우리문화연구원 이사장 화평 스님은 "축제 기간 동안 일상의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연꽃의 은은한 향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치사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여 이겨낼 때 그 사람의 삶은 바로 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틀간 특설무대와 행사장 주변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마 딛고 다시 천년 향해"

의성 운람사 보광전 낙성법회
산불 1년 4개월 만 복원 결실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로 경내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던 의성 운람사(주지 등오 스님)가 중심 법당인 보광전 복원을 마치고 7월 17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산불 발생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복원 성과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 주지 등운 스님, 부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해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형수 국회의원, 최유철 의성군수,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사부대중과 불자 등 1000여 명이 동참해 보광전 낙성을 함께 축하했다.

운람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보광전을 비롯한 전각 6~7동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등 성보문화유산 18점은 긴급 이운돼 화마를 피했으며 현재 안전하게 보존된 가운데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은 봉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산불로 천년고찰 도량이 순식간에 재로 변했을 때의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며 "절망의 불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고 운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사부대중의 원력과 따뜻한 온정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호성 스님은 치사를 통해 "1300년 역사의 운람사가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등운 스님은 법문에서 "화마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도량을 세울 수 있는 인연 또한 생겼다. 오늘의 낙성은 다시 희망을 세우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운람사와 의성군은 총사업비 약 69억 4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청허당과 산왕각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전각은 오는 11월 준공된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계룡대에 혜자 스님 군포교 원력 새기다

7월 19일 공덕비 제막식 개최
군불교 총본산 건립 공덕 기려



조계종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한 선묵 혜자 스님의 군포교 원력과 계룡대 홍제사 건립 공덕을 기리는 법석이 마련됐다.

계룡대 홍제사는 7월 19일 혜자 스님을 계사로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홍제사 창건 원력과 군포교 발전에 기여한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를 제막했다.

혜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계가 불자의 삶을 지키는 근본이자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실천의 기준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계는 착한 일을 더욱 힘써 행하고 나쁜 일을 멀리하는 근본이며, 어두운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며 생명 존중과 보시, 청정한 생활, 진실한 언어, 밝고 맑은 지혜를 지켜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덕비 제막은 혜자 스님이 군종교구장 재임 당시 계룡대 홍제사 창건을 발원하고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공로를 되새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님은 2017년 7월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취임한 당시 계룡대 영내 법당은 출입과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어 장병과 군인가족, 예비역,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열린 신행도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혜자 스님은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군불교 총본산이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영외 전법도량 건립을 발원했다. 부지 선정과 관계기관 협의, 예산 확보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시작된 홍제사 불사는 군 장병의 신행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수행 공간을 넘어 군인 가족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복합 전법도량으로 기틀을 세웠다.

한편, 이날 공덕비 제막식과 수계법회에는 108산사순례회와 도안사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계룡대=노덕현 기자

화엄사 '화야몽', 덕제 스님 茶강의

7월 18일, 보제루서 시음회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7월 18일 보제루에서 '2026 화야몽'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구충암 주지 덕제 스님의 '차의 세계-차의 효능과 건강관리' 강연과 차 시음회를 개최했다.

강연에 나선 덕제 스님은 "우리나라에도 차 문화의 전통이 깊었고, '다반사(茶飯事)'라는 말처럼 밥을 먹듯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며 "국민들이 중국이나 영국, 터키 사람들처럼 차를 물처럼 가까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화엄사는 오는 8월 8일 '제6회 지리산 대화엄사 모기장영화음악회'를 개최한다.

두 번째 화야몽은 8월 22일 열리며,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아 작가를 초청해 고향 구례와 가족, 역사, 사람과 삶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